

설 연휴 극장가 흥행 전쟁 ‘교섭’ vs ‘유령’ 할리우드 대작 ‘아바타2’ 1천만 관객 도전

액션·코미디·애니메이션 등 장르 다채
‘더 퍼스트 슬램덩크’ 30~40대 향수 자극
중국 SF휴먼코미디 ‘문맨’ 웃음 선사



‘유령’



‘교섭’

21일부터 24일까지 올해 설 연휴 극장가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상영된다. 할리우드 대작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2)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출연진으로 중무장한 한국 영화들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8일 개봉했다. 장르도 다양하다.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액션극부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코미디·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메뉴가 관객의 선택을 기다린다.

◇ ‘교섭’ vs ‘유령’ 신작 한국영화 맞대결
화려한 배우들이 포진한 두 편의 한국 영화가 나란히 개봉, 설 연휴 극장가를 차지했다. 황정민·현빈의 ‘교섭’과 설경구·이하늬·박소담의 ‘유령’이 맞대결을 펼친다.

‘리틀 포레스트’ (2018)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교섭’은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을 구하기 위해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숨겨진 활동을 그렸다. 황정민과 현빈은 각각 이성이 앞서는 외교관 재호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정원 요원 대식으로 분해 진한 브로맨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요르단 현지 촬영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이국적 정취를 극대화했다.

‘교섭’을 통해 처음으로 액션 장르에 도전한 임순례 감독은 특유의 휴머니즘을 결합해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낸다.

‘독전’ (2017)의 이해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유령’은 일제 치하에 놓여있던 1933년 경성을 배경으로 삼았다. 항일조직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외딴 호텔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용의자로 지목된 다섯 명의 인물이 벌이는 심리 게임과 생존을 위한 육탄전이 공존하며 추리극과 액션극으로서의 재미를 선사한다.

이 작품에서 단연 뛰어난 것은 시각적 재미다. 이해영 감독은 호텔을 비롯한 영화 속 공간들을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로 제작했다.

특히 짙은 초록색, 자주색, 주황색 등 캐릭터마다 부여된 각각의 색감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의기투합하는 인물들의 사투 과정에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 인기 영화 ‘아바타2’ · ‘슬램덩크’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설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아직 ‘대작’ 들을 보지 못했다면 모처럼 짬을 내 극장을 찾아보는 것도 연휴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지난달 14일 개봉한 영화 ‘아바타’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은 9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5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아바타: 물의 길’

있다. 전작 ‘아바타’, 영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제임스 캐머런이 메가폰을 잡았다. 최첨단 영상기술로 구현한 수중세계, 3D에 특화된 전투 장면, 화면 속 신기함을 더하는 수생 생명체 등이 극장을 받으며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모았다.

1990년 인기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당대 만화를 보며 자란 30~40대는 물론 농구팬이라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만화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각본과 연출을 직접 맡은 작품은 ‘빨간 머리’ 강백호가 아닌 ‘넘버원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웹툰작가 조석의 작품 ‘문맨’을 원작으로 만든 중국 SF휴먼코미디 ‘문맨’은 관객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지구멸망을 막고자 달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투입된 정비공이 홀로 낙오하며 벌이는 지구구원 프로젝트를 코믹하게 그렸다.

최근 개봉한 ‘라일 라일 크로커다일’과 ‘프린스 차밍’은 팝스타의 노래와 함께 동심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캐리 소프트가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도 설연휴 가족이 함께보면 좋을 기대작이다. /최진화 기자

잔잔한 감동 광주극장 예술영화 어때요

‘유랑의 달’ · ‘해시태그 시그네’ · ‘시간을 꿈꾸는~’ 개봉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3000년의 기다림’ 상영



‘유랑의 달’



‘해시태그 시그네’



‘시간을 꿈꾸는 소녀’

박스오피스 1위 대작이나 상업영화 대신 감성을 자극하는 특별한 영화 관람도 설 연휴를 즐기는 방법이다.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독립예술영화는 광주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우선 ‘유랑의 달’이 19일 개봉했다. 이 작품은 유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낙인찍힌 두 사람이 15년 후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일본 서점대상 1위를 차지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상일 감독의 정교한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가 더해져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일본의 톱스타 배우 히로세 스즈와 연기파 배우 마츠자카 토리두 배우의 열연도 주목을 받았다.

앞서 15일 ‘해시태그 시그네’가 개봉했다. 화제작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의 된다’를 제작한 제작사 ‘오슬로 픽처스’의 신작으로 타인의 관심에 목마른 한 여성이 고통과 우울을 꾸며내고 전시는 모습을 통해 ‘SNS 세대’의 나르시시즘(자기애)을 향한 신랄한 풍자를 담아냈다.

영화는 SNS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자기과시적 성향이 개인을 어디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세련된 블랙코미디로 그려냈다.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약화하는 시그네의 중독적인 자기과시 행태, 불분명해지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는 한 편의 소름 끼치는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12일 개봉한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다’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도토리 마을 방과후’ 교사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방과후 교사라는 직함으로 일하지만, 몇 년이고 일해도 단 하루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작품은 박홍열·황다는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박 감독은 영화 ‘간신’,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등 여러 편의 상업영화를 비롯해 100여 편이 넘는 작품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했다. 함께 한 황 감독도 영화 ‘작업의 정석’, 드라마 ‘봄의 왈츠’, 나의 위대한 아내’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다. 이번 작품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오는 25일 오후 7시 20분 영화 상영 후 박홍열 감독과 출연진(분홍이, 전 하제누리 마을방과후 교사안테나)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 강경필(전 교육공간 오름) 대표의 진행으로 열린다.

12일 개봉한 ‘시간을 꿈꾸는 소녀’는 4살 때부터 꿈을 통해 사람들의 미래를 보며 무너가 될 운명을 타고 났지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수진’의 선택과 삶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작품은 무속인 수진의 삶을 꿈도 열정도 많은 한 청춘의 고민이라는 측면에 집중해 담아냈다.

다큐멘터리 ‘춘희막이’ (2015) 등을 연출한 박혁지 감독은 수진이 수능을 치렀던 2015년부터 7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었다. 카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메라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박 감독 특유의 연출 방식은 관객이 스크린으로 인물의 삶을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8일 오후 3시 영화 상영후 박혁지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3000년의 기다림’ (5일 개봉)은 세상 모든 이야기에 통달한 서사학자 알리테아(틸다 스윈튼)가 우연히 소원을 이뤄주는 정령 지니를 깨워내며 펼쳐지는 판타지 무비다.

조지 밀러 감독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A.S.바이어트의 단편소설 ‘나이팅게일 눈 속의 정령’ (The Djinn in the Nightingale’s Eye)을 각색했다. 1990년대 후반 원작을 처음 접했다는 밀러 감독은 “인생의 신비와

모순을 잘 함축해서 담은 작품이라 느꼈다. 오랫동안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다”며 영화화를 결심한 계기를 밝힌 바 있다.

밀러 감독은 ‘천일야화’ 속 액자식 구성을 택해 이야기 하나하나를 책의 개별 챕터처럼 표현해내며 각 이야기가 가진 고유한 향수를 신비롭고 매끄럽게 담아냈다. 톰 홀 켄보그 음악감독과 1년 동안 함께 멜로디 작업을 한 끝에 만들어냈다는 음악은 환상성을 더한다.

가까린 주택단지를 향한 소년 ‘유리’의 러브레터로 사라지는 공동체를 향한 향수를 담은 따뜻한 영화 ‘가가린’과 한 남자의 목숨을 건 비밀과 거짓말을 담아 내며 1만 관객을 돌파한 ‘페르시아어 수업’도 설 연휴 기간까지 장기 상영된다. /최진화 기자